

좌파 페미니스트 철학자의 한 관점

카바레로 지음 《플라톤 유감 *In Spite of Plato*》

이봉재

서울산업대 교수·인문학과

철학은 본성상 급진적이어야 한다. 급진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용인된(또는 쉽게 용인될) 개념들 안에 안주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의 철학은 개념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복잡할 것도 없는 현실을 팬스레 난삽한 용어로 덧칠하는 잉여일 뿐이다. 그런 철학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에서 저급한 사회과학이며, 읽기 쉽지도 않다는 점에서 수준낮은 저널리즘이다.

페미니즘의 철학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철학적이다. 페미니즘의 옹호자들은 서구의 지성사, 철학사의 모든 전통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점에서 아낌없이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과학과 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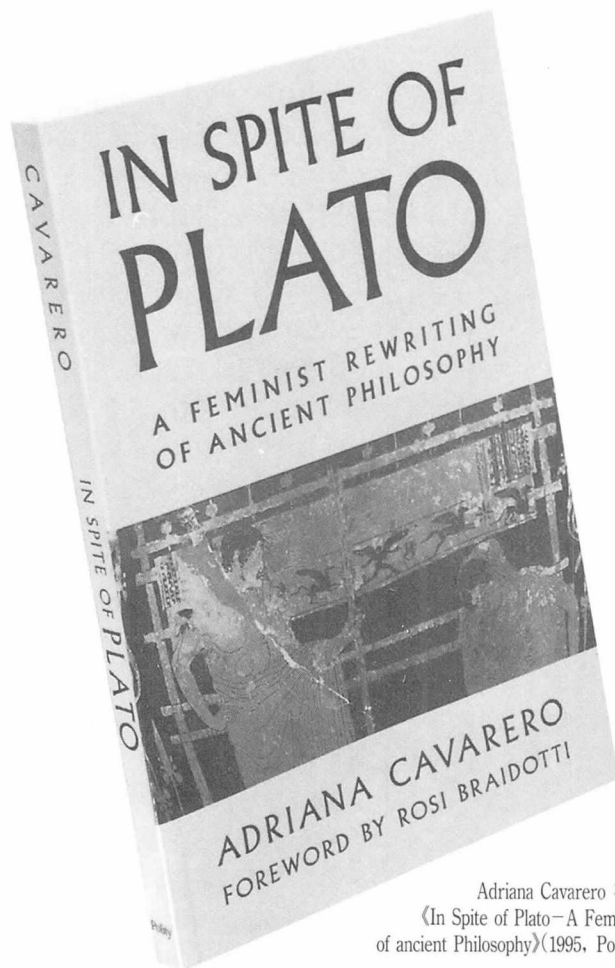
그러나 서구의 철학전통을 전혀 달리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철학전통이란 몇몇 철학자들이 아니다. 그 철학자들로부터 영향받은 우리의 언어·사고·관념들 모두를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의식의 지평 위에 떠올리지 않는 단단한 일상으로 변해버린 관념의 층에 도전해야 하

기 때문이다. 과학과 성(性) 간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그러한 일에 속한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과학사학자 이블린 폭스 켈러가 과학과 성차(性差)에 대해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켈러의 옛스승은 “여성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과학과 관련해서 도대체 성차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전통의 표현이다. 켈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제가 배우는 것은 여성에 관한 것도 남성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과학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객관적’인 것이 되어버린 전통 자체를 문제로 제기하고 문제로써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페미니즘의 어려움은 그것이라.

주어진 것으로서의 역사, 객관화된 것으로서 역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이며, 그를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한다. 이탈리아의 지도적인 페미니스트 철학자 카바레로가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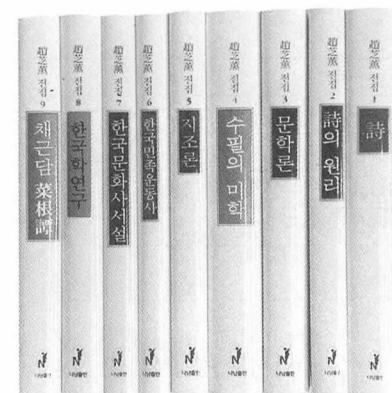


Adriana Cavarero 지음
《In Spite of Plato—A Feminist Rewriting of ancient Philosophy》(1995, Polity)

화제의 출간

한국현대정신사의 뿌듯한 자산

새로 엮은 《조지훈 전집》 완간



지훈 조동탁(1920~1968)의 전집이 새로 엮어져 나왔다. 남출판이 고전총서 기획의 일환으로 펴낸 《조지훈전집》은 73년 일지사판 전집의 판권을 물려받아 빠졌던 글들을 보완하고 판본을 다시 대조한 결정본이다. 홍일식·최동호·인권환·이동환·김인환(이상 고려대)·홍기삼(동국대)·최정호(연세대)·이성원(서울대)·박노준(한양대) 교수 등이 편집위원을 맡았다.

모두 9권으로 이뤄진 《조지훈전집》은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연결해준 가교로서의 문학적 위치와 한국학의 초석을 마련한 국학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4권까지는 지훈이 남긴 문학적 업적을 망라했다.

《시》(제1권)는 《청록집》을 비롯, 다섯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 전부와 시집에 묶이지 않았던 시, 한시 등을 모았다. 한국현대시의 완성에 기여한 큰 시인의 모든 작품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의 원리》(제2권)는 지훈의 시론으로 80년대 중반까지도 문학도들의 필독서였다.

《문학론》(제3권)은 문학에 관한 글을 〈문학론〉 〈시론·시화〉 〈서·발·기타〉 등으로 나누어 실고 있다. 권말에는 부록으로 지훈에게 많은 영향을 준 실형(實兄) 세림 조동진의 시집을 수록했다. 《수필의 미학》(제4권)은 “글은 곧 아름다운 사상에 옷 입히기”라는 지훈의 문장론에 기반한 담백하고 강건한 수필들을 담았다.

《지조론》(제5권)은 정치·경제·교육·종교·문화 등 시사문제를 논한 시론 모음.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고귀

한 투쟁이기까지하다”는 지훈에게서 조선의 마지막 선비를 본다.

《한국민족운동사》(제6권), 《한국문화사서설》(제7권), 《한국학연구》(제8권)에는 한국문화사를 전공이라 자임하며 역사학과 민속학에 쏟은 지훈의 열정이 살아 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는 넘어야 할 준령들이다. 《한국민족운동사》는 갑신정변에서 을유광복까지 60년간의 한국근대민족운동을 정리한 것이고, 《한국문화사서설》은 한국문화에서 정신사 체계화의 안목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학연구》에는 고대가요와 민속학에 대한 지훈의 관심이 녹아 있다.

지훈은 한시와 한문국역에 능한 한학자이기도 했다. 지훈이 국역·주해한 《채근담》은 그의 한학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채근담》을 전집의 마지막권으로 엮었다.
—최성일 기자

☞ 에세이 · 문학

한번 시는 세상인데

구인환 / ₩8,000원

영원한 사랑의 기도

황송문 / ₩9,500원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

강준희 / 3책 / 각권 ₩6,500원

근엄하고 싶은 우리의 정서들을 위하여

임종찬 / ₩7,000원

의사 그리고 25년

연규호 / ₩8,000원

남홍우 산문집

남홍우 / ₩8,000원

북한 문학 사전

이명재 / ₩50,000원

북한 문학사론

김윤식 / ₩12,000원

비평의 쟁점과 문학의 인화

윤병로 / ₩9,000원

한국 현대작가의 문제작 평설

윤병로 / ₩9,000원

한국 현대소설의 비평적 성찰

구인환 / ₩15,000원

근대 전환기 시가 연구

김교동 · 설성경 / ₩15,000원

한국 소설의 유형학적 연구

김용구 / ₩12,000원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박민수 / ₩17,000원

해방기 소설의 현실의식과 구조연구

인한상 / ₩15,000원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송지현 / ₩8,000원

영랑 김윤식 연구

허형만 / ₩10,000원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 ₩9,000원

산문정신의 탐색

오양호 / ₩10,000원

한국시의 구도와 비평

박명용 / ₩13,000원

일제 말기 소설 연구

신희교 / ₩10,000원

개천 만주령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조규익 / ₩17,000원

한국 현대 소설사론

정호웅 / ₩13,000원

한국 현대시의 지평과 심층

김완하 / ₩15,000원

현대시학

尹石山 / ₩10,000원

民謠 詩學 研究

左惠景著 / ₩13,000원

한국 고전소설의 본질

설성경 / ₩7,500원

조선조 도가의 시문학연구

손찬식 / ₩15,000원

주애정구어담(상·중·하)

최웅 / ₩60,000원

한국의도교사상과문학교육연구

박삼서 / ₩15,000원

韓國 古小說史의 視角.

丁奎福 外 / ₩35,000원

韓國 詩歌의 通時的 研究.

趙載勳著 / ₩30,000원

韓國 翰林詩 評釋.

金倉圭 / ₩40,000원

한국 고전극 연구

한옥근 / ₩11,000원

기행가사지문선집 I

최강현 / ₩17,000원

한국기행문학 작품연구

최강현 / ₩30,000원

금강산문학지문선집 I

노규호 / ₩13,000원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노대규 / ₩13,000원

한일 어학 논증

이종철 / ₩30,000원

영어법과 국어교육연구

서덕현 / ₩13,000원

☞ 역사학

동양사 회고와 전망

역사학회 / ₩20,000원

서양사 회고와 전망

역사학회 / ₩20,000원

한국사 회고와 전망

역사학회 / ₩36,000원

한국법제사

이정규 / ₩25,000원

조선 통감부 연구

강창석 / ₩8,000원

고려 법제사 연구

신호웅 / ₩15,000원

조선 후기 당쟁 연구

이희환 / ₩15,000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주석 이동녕연구

이현희 / ₩30,000원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률성

이현희 / ₩30,000원

국학자료원

전화 / 2917-948, 2727-949

팩스 / 2911-628

이탈리아의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카바레로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주변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플라톤적 성취가 남성의 역사를 위해 지워버린 것들을 발굴해내려 한다. 서구역사가 정교화해온 여성의 자기인식들은 사실상 형이상학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위대한 철학적 성취로서 플라톤이 말한 것들 주변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플라톤적 성취가 남성의 역사를 위해 지워버린 것들을 발굴해내려 한다. 카바레로가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며 옷감을 찢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페넬로페로부터 빌려오는 '다시 풀기'(unraveling)와 '다시 짜기'(reweaving)의 방법론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 '해체적' 독법의 그것과 다름없다.

카바레로가 이를 통해 밝혀내는 것은 서구 철학의 발원지에서 벌어진 '상징적 모친 살해'의 모습이다. 카바레로에 따르면 모성 그리고 출산이라는 자연적 행위에 대한 철학적 부정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명제인 영혼과 육체의 구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영혼에 의해 규정하고 철학의 임무를 "육체로부터 영혼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철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유한자(有限者)로서의 인간관, 죽음을 키워드로 하는 철학이 유래하며, 그것들은 그래서 모두 플라톤적이라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강조는 출산과 탄생이라는 사건을 격하하는 것임으로 해서 바로 모성에 대한 철학적 거부가 된다.

성차(性差)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건-죽음의 '남성적' 매력은 그런 데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가 정교화해온 여성의 자기인식들은 사실상 형이상학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것이 카바레로의 생각이다. 그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양철학의 형이상학으로부터 결별해야 할 것이다.

영혼/육체의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철학을 육체와 자연과 대칭적으로 위치짓는 플라톤의 구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와 우리의 자기 이해를 다시금 '자연'의 영역 속에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 이래의 철학전통이 출산, 탄생과의 어의(語義)론적 연관을 체계적으로 지워내버린 그 '자연'의 개념을 다시 복권시켜야 한다는 것이 카바레로의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카바레로의 관점은 페미니즘적 유물론(feminist materialism)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당연히 그때의 물질 개념은 기계론의 그것이 아닌 무엇이겠지만.

신성의 개념

카바레로의 유물론에서 영혼과 신성(神聖)의 영역은 부정되지 않는다. 카바레로는 신성의 개념이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를 희망한다. 종래 우리의 신성개념은 죽음과 연관된 것이었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대극으로서의 신성, 우리가 죽음으로써만 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신성이었다. 카바레로의 관점에서 신성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기원, 탄생과 연관된다.

카바레로의 결론만을 들어보면 그것은 결코 낮은 주장이 아니다. 형이상학과 존재론에 대해 말하는 페미니즘을 들여다본다면 있음직한 이야기이다. 카바레로에게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페미니즘의 형이상학이 전통적 형이상학과 본격적으로 겨루고 있다는 점이며, 플라톤을 해체의 수법으로 재독해내는 수준이다.

카바레로는 현재 이탈리아의 베로나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고대 희랍 철학과 현대 정치철학의 분야에서 주로 작업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분명한 좌파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가장 주목받는 페미니스트 철학자 중의 하나다. ❖